

## 艸石의 30年 陶藝活動

林 英 芳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教授(美學)

“흙을 만지면서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이 되었다”라고 하며 艸石 權純亨은 자신의 작업장을 필자에게 둘러 보여 준다. 30년 동안 흙을 만지면서 살아온 그의 半生이 필자가 보았던 艸石의 작업장으로 이어져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있는 기구, 비품, 시설 등등 그 모든 것에는 艸石의 숨길과 체취, 그리고 열기가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당시에 보았던 艸石의 작업장은 큰 전투를 치르고난 후의 흔적과 그 열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艸石은 태연하게 이 장소를 일일이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自身の 싸움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그는 30년간 계속된 끈질긴 흙과 불을 상대로 한 싸움이 품에 배여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할뿐이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전한다”는 불굴의 투지력과 의지를 보여 준다.

사실 艸石이 걸어온 陶藝家로서의 30년은 그가 말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陶藝에 대한 獻身이었고 또한 그 자체가 그의 삶의 意義였다.

陶藝에 바친 그의 半生을 결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의 展示는 그에게 있어 더욱 각별한 意義와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이번 전지가 그의 半生에 걸친 藝術에 대한 비판적인 결산과 평가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艸石의 後半期 餘生이 陶藝를 어떻게 跳躍시키느냐 하는 基盤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時點에서 艸石의 오늘날까지의 陶藝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東洋畫는 옛부터 詩, 書, 畫라는 三絶이 절대 시되고 있듯이 陶藝의 세계 또한 土, 火, 釉의 三位一體를 至上의 가치로 삼고 있다.

前者가 藝人의 藝術的인 氣品과 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後者는 이에 自然性과 陶藝家의 氣合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옛부터 陶藝를 高貴한 藝術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艸石 權純亨이 30년간 걸어온 길은 이러한 高貴한 陶藝를 더 높은 차원의 경지로 昇華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에서의 한 과정이었다.

그것은 人爲的으로 흙과 물이라는 自然性을 극복한다는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自然性을 최대한으로 살려 兩者의 融合을 통하여 天然의인 그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匠人으로서의 自然의 克服이 있고, 또한 陶藝家로서의 自然에 대한 尊重이 있게 된다.

艸石은 陶藝의 이러한 두 차원의 단계를 잘 알고 있다.

보통 그 첫단계의 극복이라는 문제만을 안고 陶藝에 임하는 예가 허다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갖고, 또 그것이 陶藝의 한계라고 믿고 있는 예도 많다.

그러나 陶藝의 차원높은 경지는 그 自然性을 尊重하는 데에 있는 바, 陶藝家는 自然의 生命력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兩者의 氣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陶藝家는 自然의 生命력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人爲性을 陶藝의 一義性으로 간주하는, 陶藝家보다 自然性을 무엇보다도 더 尊重하는데서 찾아진다.

그렇기에 陶藝家로서의 艸石의 신념은 自然속에 숨어 있는 生命力을 尊重하고 감지하여 그것을 陶藝에서 顯現케 한다는 것이다.

艸石이 30년간 계속 끈질기게 흙과 불을 상대로 싸움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自身の 理想的인 신념의 실천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艸石이 만난 어려움은 불의 自然性에의 접근이었고 또다른 한편은 흙과 불에 釉彩를 和合시킨다는 일이었다.

불의 天性的인 性質을 制御하지 않고, 尊重하며 발휘케 하는 艸石의 自然性에 대한 종속적인 자세에서 그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艸石의 실체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불과 흙의 天然性을 人爲的으로 조작하려고 한 氣味가 개입한 탓이라 하겠다.

艸石의 말인즉, “그렇게 불과 같이 지내도 불을 알 수가 없어, 불을 엿보는 나의 눈이 지쳤어”. 이 얼마나 비탄한 말인지, 필자의 가슴이 뜨끔해진다.

더욱, 艸石 自身은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과 共感을 어렵듯이 하게 된다.

그러나, 艸石은 陶藝의 主要한 關鍵이 自然性의 制御나 調節에 있는 것이 아니라, 自然性에 순응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자면 自然性이 요구하는대로 순응하고 맞추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탈출구없는 갈등을 맛보았을 것이다. 오늘의 艸石의 눈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陶藝家의 生活에서의 산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흙과 불에 釉彩를 和合시킨다는 일이다.

艸石의 말에 따르면 白雲石釉가 기본이고 동, 코발트, 망간, 철등의 성분이 釉藥에 개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 釉藥 또한 自然性인 마 본질이 제각기 다른 흙을 위시한 네가지 성분의 一致가 어렵다는 일이다.

이 一致는 和合을 의미하며 自然性의 總合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釉藥은 불의 반발에 의하여 作家가 의도했던 色과는 다른 결과의 現象을 보인다는 문제가 나온다.

불의 반발과 거부반응은 釉藥을 녹아 흐르게 한다거나 또는 변색·달색케 하는 상태까지 보이게 한다고 艸石은 말하면서 그러한 例作을 筆者에게 보여준다.

釉彩의 온전한 정착이 어렵다함을 이렇듯이 艸石은 항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해야지”하는 말로 그 해결책의 답을 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무슨 뽀족한 답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느 公式的인 방법이 있겠는가.

가장 정직한 답이라 하면 艸石이 “그저 계속 해야지”하는 말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艸石은 自身이 獻身하고 있는 陶藝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레로 만들어진 여러가지로 풍부하고 편안한 느낌의 형태에 色釉를 바르고 그것을 다시 불에 구워내는 과정을 통해 자연속에서 찾아지는 형상, 빛깔, 촉감, 소리등 자연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시각경험을 토대로 살려 내고 싶다. 다시 말해서 흙과 불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나는 내면세계를 포출해 내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艸石의 소신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가지의 기본적인 艸石의 藝術性을 찾게 된다.

하나는 그가 탐구하고 있는 價値對象인즉, 自然의 생명력이라 하겠으며 두번째의 것은 艸石 自身の 藝術性의 活性化이며 艸石은 이것을 시각경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극히 단순한 시각경험이라는 말은 艸石의 30년간의 陶藝活動과 그의 藝術性을 집약한 것이며 心身의 勞苦와 直觀이 結晶된 상태의 시각경험이라는 뜻이다.

세번째의 것은 내면세계를 포출한다는 作家 自身の 投入이며, 作家의 魂을 作品에 담겨 놓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作品의 存在性이 있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艸石은 作品의 存在方式을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그가 걸어온 30년간의 陶藝世界가 험난한 여정이었음은 以上과 같은 상황으로 되새겨 지며, 특히 이번 展示로 과시되고 확인되어 진다.

艸石의 陶藝活動을 記念할만한 이번 展示는 數10點의 多樣各色의 陶器作品과 모뉴멘탈한 성격의 建築陶材作品이 등장한다.

독립적인 立體陶器에 흔히 집착하고 있는 우리 陶藝界에서 艸石은 이탈하여 새로운 陶藝의 경지를 개척하고 무한한 陶藝發展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그것은 500個에 가까운 建築陶材作品이 形成하는 建築벽면의 혁신적인 등장이며, 새로운 視覺造形 空間藝術의 경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建築藝術을 새로운 局面에서 어떻게 活性化시킬 수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艸石의 이와같은 創意性은 1978년 워커 힐 호텔 玄關벽면을 “금수강산”이란 題로 活氣를 주었고 1980년 K.B.S.別館 公開홀을 “律”이란 題로 벽면을 陶藝畫하여 새로운 藝術的인 視覺空間을 창설하였다.

이에 이어 1985년에 프레스센터 20층 로비 벽면을 “歡喜”題로 環境美化한 바 있으나, 특히

1986년 한국전력공사 中庭에 “動律”, “力動”題로 權築的인 外部空間 시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外部空間의 構造를 陶藝作으로 構想하였다는 점과 陶藝가 外部空間에 構築的이며 동시에 造形的 視覺性을 주어 藝術的인 環境을 산출하게 하였다는 점이 기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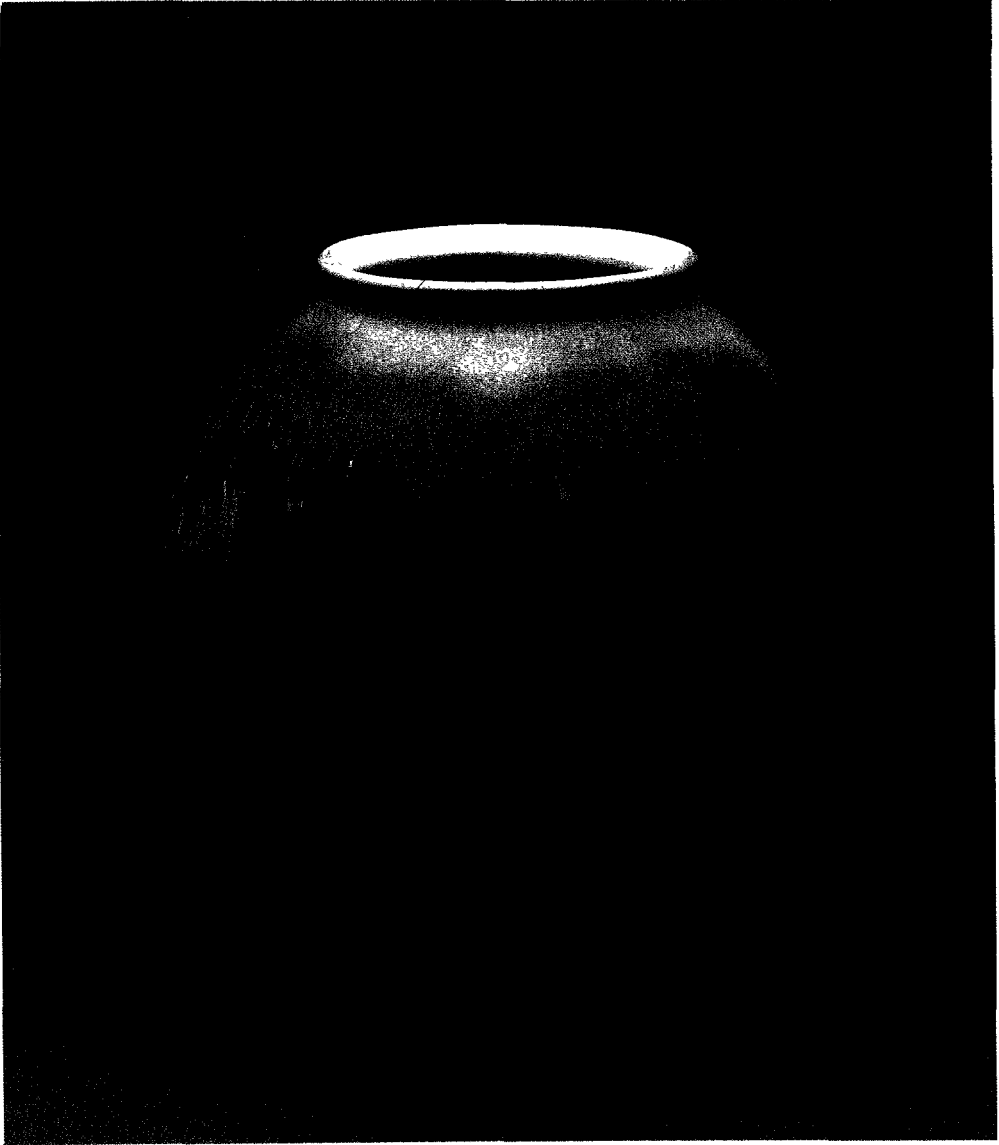
艸石의 넓은 藝術的인 視覺은 당연한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陶藝가 무엇인가를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실히 지적해야 할것 같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처럼 艸石의 이번 展示가 모든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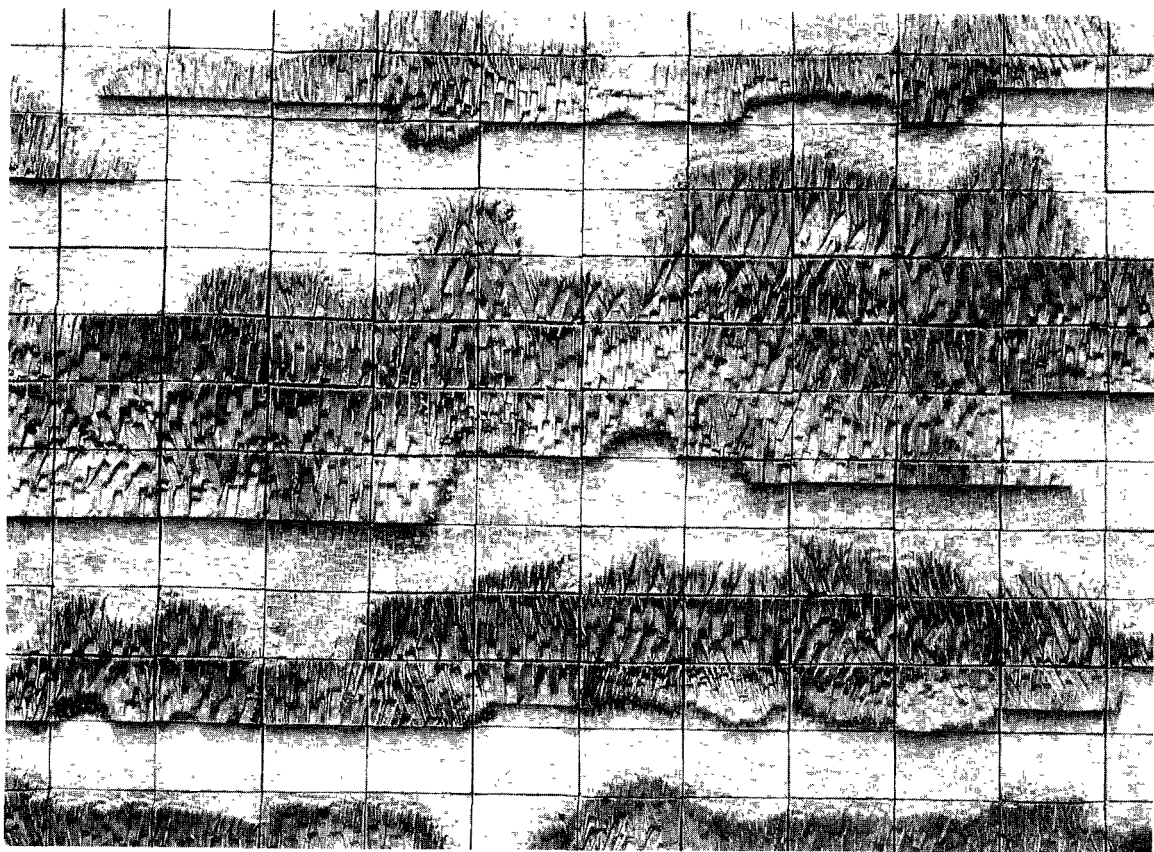
艸石의 불굴의 투지력과 意志, 그의 創意性과 실천력 등, 이 모든것이 오늘의 그의 藝術을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는 오늘의 그의 藝術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어느 특이한 創作을 계획하고 있는 그도 아니다. “그저, 꾸준히 계속 일을 해야지” 이것이 艸石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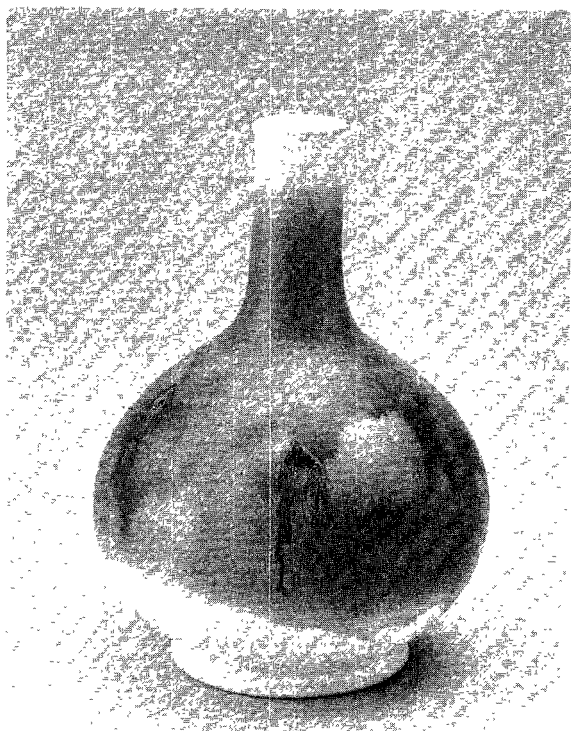
어쨌든, 이 기회에 艸石 權純亨의 지속적인 健闘를 바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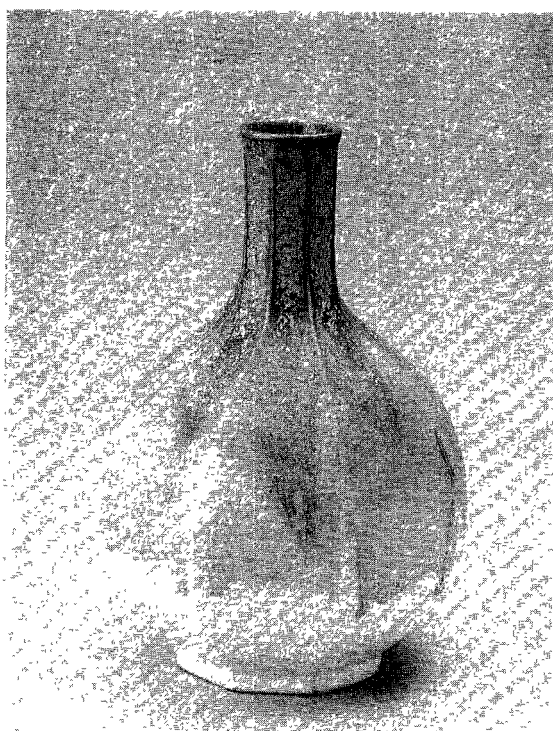
白雲釉三彩山文大壺 H.447m W.50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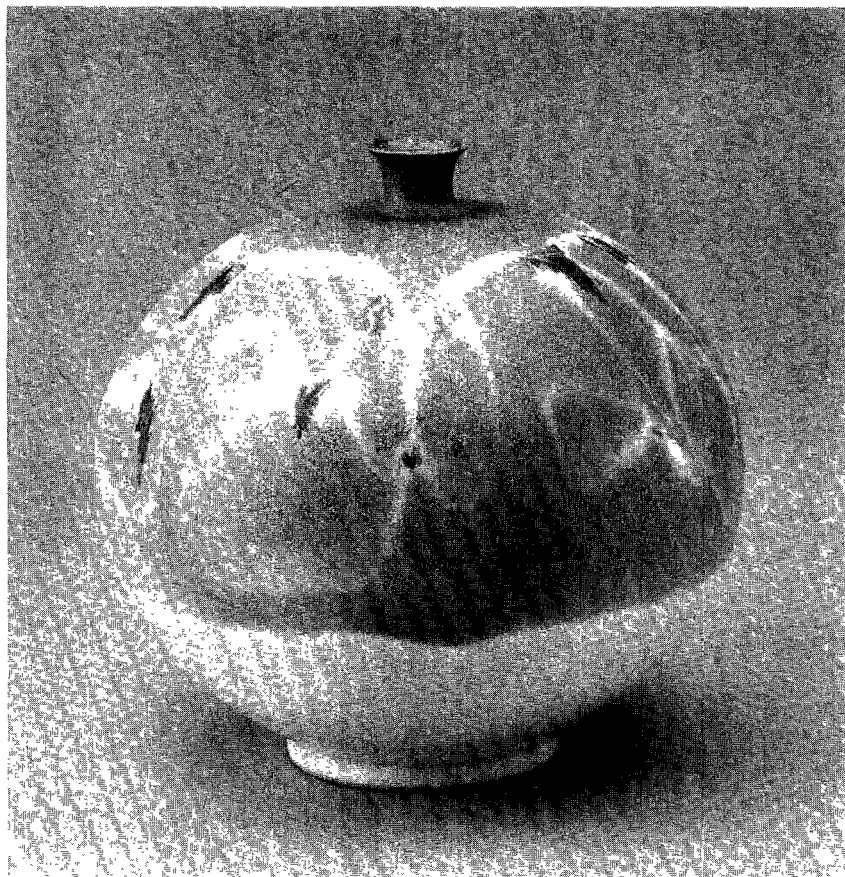
脈(部分) H. 3,000mm W. 7,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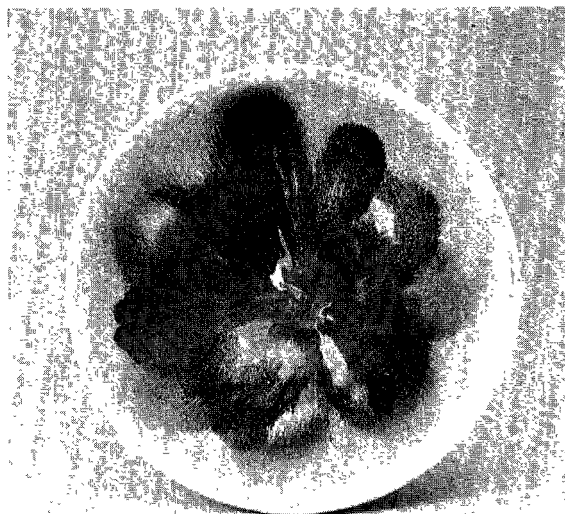
綠青彩草文瓶 H. 236mm W. 17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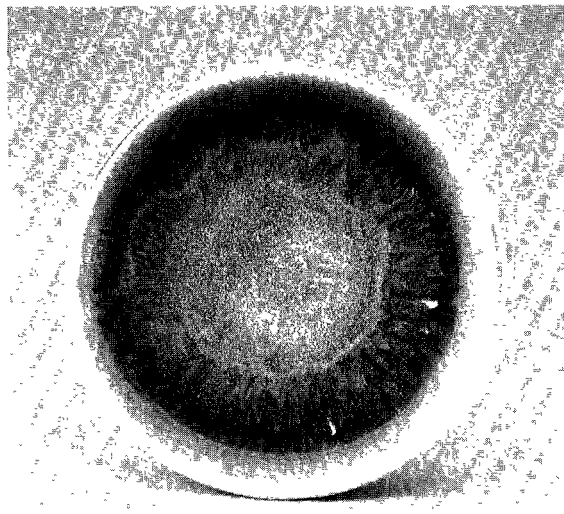
白雲釉三彩角瓶 H. 255mm W. 165mm



綠青彩草文瓶 H. 237mm, W. 24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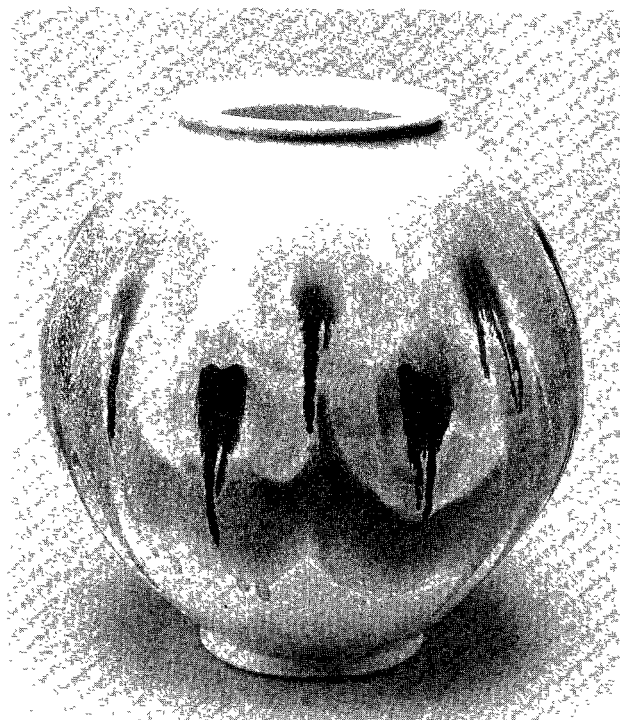
大皿(動律) H. 70mm, W. 487mm



大皿(核心) H. 70mm, W. 450mm



綠青釉草文器 H.498mm W.300mm



綠青彩果文大壺 H.528mm W.510mm



白雲彩三彩山文大壺 H.477mm W.508mm